

미국 보수교회의 성장과 새로운 영성의 추구*

金 鍾 瑞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미국 종교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첨단 과학의 시대와 더불어 종교들은 세속화되고, 또 종교다원주의는 신념 체계의 상대화를 초래하여 결국 미국인의 종교심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어떤 시대 어떤 곳에서이든 극단적인 영적 위기는 늘 또한 새로운 영성의 갈구를 초대하는 법이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미국에서 성스러움이 새롭게 등장하는 곳은 어디인가? 아마도 크게 두 가지를 꼽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세속화나 종교 다원화와는 아랑곳없이 별도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복음적 (evangelical) 보수교회 (conservative churches) 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폭넓은 문화적 스펙트럼을 형성하며 컬트 (cult) 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새로운 종교의 형태들이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특히 이 두 경향이 최근 들어서 상호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 보수교회의 성장과 변화

대체로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이르면서 유대-기독교 전통 위주로 짜여진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 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기존 미국 종교의 틀은 큰 도전을 받는다. 이것은 특히 반문화(counter-culture) 운동의 맥락에서 불거져 나온 이질적인 새 종교들의 출현으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월남전을 치르면서 젊은이들 가운데 확산된 사회적 불안정¹⁾과 아시아로부터의 이민 및 종교들에 대한 정책적 탄압이 갑자기 풀리면서²⁾ 낯선 컬트들은 우후죽순 모양새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실로 수많은 동양에서 유래하는 컬트들과 뉴에이지(New Age) 신앙 및 인간 잠재력(human potential) 개발운동 등이 기성종교에서 파생된 일부 독특한 집단들과 더불어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렇게 급작스러운 컬트 붐이 대규모로 오래도록 지속될 수는 없었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벌써 미국의 컬트들은 침체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자리들을 제리 팔웰(Jerry Falwell)의 도덕운동 집단(Moral Majority)같은 매우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들이 대신 차지하게 된다.³⁾

이러한 상황은 유럽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20세기 후반 이후 거의 모든 측면에서 그러하듯이 유럽의 컬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거의가 미국으로부터 전수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유럽 컬트 운동은 라즈니쉬(Rajneesh)파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미국을 먼저 거쳐서 들어 간 것들이었다. 즉 미국인들에 의해 운영되거나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거나 미국에 있는 모델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⁴⁾ 결국 미국을 진앙으로 시작된 국제적 컬트 운동은 60년대에 붐을 타기 시작하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이미 사양기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그 대신 개신교 보수교파들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1) Wuthnow, R., "Religious Movements and Counter-movements in North America," In Beckford, J.A., ed., *New Religious Movements and Rapid Social Change*, Sage Publications Ltd., 1986, pp. 4ff.

2) Melton, J. G., "The Changing Scene of New Religious Movements: Observations from a Generation of Research," *Social Compass* 42/2 (1995): 268.

3) Wuthnow, R., *Op. Cit.*, pp. 15-18.

4) Beckford, J. A. & M. Levasseur, "New Religious Movements in Western Europe," In Beckford, J. A., ed., *New Religious Movements and Rapid Social Change*, Sage Publications Ltd., 1986, pp. 36-39. 그러나 미국에 비해 유럽 컬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비교적 젊고 사회적으로 하류층이기보다는 중산층인 점이 특징이라고 백포드는 덧붙이고 있다. *Ibid.*, pp. 39-41.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종교사회학에서는 교파(sect)는 사회내의 종교적 주류를 지향하고, 반면에 컬트는 그 주류에 비해 이질적인 면이 강하다고 본다. 따라서 교파운동은 종교전통을 강화하고, 반면에 컬트 운동은 전통적 신앙이 약할 때 증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교파와 컬트는 사회 내에서 기능적 대체(functional alternative)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성장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비교적 근자에 지적되어 왔다.

이것은 세속화와 더불어 모든 종교집단이 붕괴한다는 종래의 이론들과는 달리, 경험적 연구들에 있어서 교파와 컬트의 각기 강해짐은 상관관계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셈이다. 즉 교파와 컬트 운동들의 변화는 종교적 맥락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 왔다.⁵⁾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컬트를 비판하는 주체로서 유대교나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의 보수적 큰 주류들 뿐 아니라 이러한 기성 종교들의 작은 교파들이 종종 거론되어 왔다. 즉 교리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교파들은 컬트들에 대하여 이단시비를 강조하여 신도 빼앗기 경쟁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⁶⁾

아무튼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등에 업고 싸우며 다시 일어나게 되는 보수적인 교파의 교회들은 물론 전통적인 주류 보수 교단과는 사뭇 달라진다. 그러나 전통적 보수교단의 교회들이 주로 '근본주의(fundamentalism)⁷⁾와 '보수복음주의(conservative evangelicalism)⁸⁾를 기반으로 하였다면, 1960년대 이후의

5) 미국의 경우, Stark, R., "Church and Sect," In Hammond, P.E., ed., *The Sacred in a Secular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 146 참조.

6) Robbins, T. & D. Anthony, "New Religions and Cults in the United States," In Eliade, M., ed.,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10,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p. 402.

7) 이것은 1910년부터 1915년에 걸쳐 로스엔젤레스의 두 부자 사업가가 지원하여 발간되어 무려 수 백만 부가 배포된 「근본주의」라는 12권으로 된 총서의 기본 정신을 고수하는 것이다. 즉 참된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근본교리: (1) 성서의 무오 문자 영감설, (2) 동정녀 탄생, (3) 그리스도의 기적들, (4) 육체의 부활, (5) 인간 존재의 전적 인 타락, (6) 대리적 속죄, (7) 천년왕국 이전의 재림을 믿는 것이다. (Knitter, Paul F., *No Other Name?*,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6, pp. 76-77)

8) 이것은 1940년대에 빌리 그레함(Billy Graham) 등이 주도하였던 '미국 복음주의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의 성향이다. 즉 (1) 성서의 절대성 확신, (2) 예수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확신, (3) 세계를 기독교로 개종, (4) 역사 비판적 성서해석을 불신 등 근본주의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면서도 반면에, (1) 논쟁지향성, (2) 반지성주의 및 (3) 사회적 무관심 등에 반기를 들어서 보다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동

보수적 교파의 교회들은 조금 더 개방된 '신복음주의(new evangelicalism)'적 경향을 띠게 된다.

물론 새로운 보수교회들도 (1) 성서의 최고 권위 인정 (2) 유일한 구세주로서의 예수의 보편적 주됨 및 (3) 선교의 강조라는 본래 보수 교단 전통의 기본적인 원칙을 결코 바꾼 것은 아니었다. 다만 교회일치적(ecumenical) 협력에 더 개방적이 되고, 성서의 '제한된 무오류성' 주장 및 더 적극적인 정치 참여 등이 강조된다. 1975년 13개 항목에 걸쳐서 "교회를 파괴하는" 현대주의적 신학을 단호히 거부하는 '하트포드 선언(Hartford Declaration)'이 나왔던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⁹⁾

아무튼 이들 모든 보수교회들은 문화적으로 개도화되면서 사실 세속화나 종교다원주의적 위협으로부터는 면제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주류 개신교 교회들이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들 보수교회들만은 급성장을 거듭하였던 것이다.¹⁰⁾ 과연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학문적인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딘 켈리(Dean Kelley)는 보수교회들이 종교의 본질적 기능들(즉 궁극적인ultimate 것과 진지한serious 것들)을 강조하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자유주의 노선 교회들의 세속화 경향에 비해 더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므로 성장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물론 보수교회의 이차적 사회적 기능이 약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궁극적 기능을 수행해냄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참여의 역량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었다.¹¹⁾

시에 복음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한 보수 개신교 세력이다. (*Ibid.*, pp. 76-77)

- 9) 이 선언은 피터 버거(Peter L. Berger)와 리처드 뉴하우스(Richard J. Neuhaus) 등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하트포드 신학교에 모여 에큐메니칼 무드 속에서 현대신학을 비판한 것이다. 교회일치적 맥락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제 6조에서 "모든 종교들은 다 같이 타당하다. 종교의 선택은 진리에 대한 확신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 기호의 문제이고, 삶의 스타일의 문제다"라는 주장을 이 문서는 거부한다고 하고 있다. (*Theology Today*, April, 1975)
- 10) 성서의 무오성에 대한 신념을 보수 진영의 구성원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미국 성인의 42%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였었다. 1979년에는 북미 인구의 약 20%에 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갤럽(Gallup)은 약 30%를 잡았고, 또 많은 잡지들이 80년대는 이들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특히 숫자상으로는 보면, 이들은 "결국 농경 문화적 폐쇄 지역으로부터 탈피하여 미국 삶의 주류로 부상했다"고 말해졌다. (Knitter, Paul F., *Op. Cit.*, pp. 77-78)

이에 비해, 레지널드 비비(Reginald Bibby)는 보수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다른 종파로부터 순수 개종(proselytism)의 결과라기보다는 기존의 신도들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니까 개종률은 다른 자유주의 노선 교회들과 별 차이가 없지만 기존 신도들의 이탈률이 현저히 낮다는 말이다.¹²⁾ 아무튼 보수교회의 성장은 다양한 해석 이론들을 초대하였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새로운 보수교회운동에서도 예전의 근본주의나 보수 복음주의적 경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점차 오직 주류에서 밀려 세력이 약해진 것뿐이었다. 그래도 상당한 영향력은 유지하며 지속되어 왔다. 특히 극단적인 근본주의는 나름대로 폐쇄적인 틀 속에서 강한 힘을 축적시켜 나가며 주류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 이것이 점차 컬트와 접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2. 극단적 보수 교파의 컬트화

흔히 현대 미국적 상황 속에서 컬트라고 하면 크게 본래 서양에서 유래하는 것과 후에 동양으로부터 유입된 것들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장미 십자교(The Rosicrucians)에서 시작하여 신지회(Theosophical Society), 사탄교(Satanism), 하나님의 자녀들(The Children of God), UFO 신앙집단, 과학교(scientology), 뉴에이지(New Age) 신앙과 인간 잠재력(Human Potential) 개발 운동 등이 해당된다.¹³⁾ 그리고 후자에는 하레크리슈나파(The Hare Krishna), 초월명상(Transcendental Meditation)과 요가(Yoga) 집단, 크리슈나무르티(Krishnamurti), 라즈니쉬(Rajneesh) 운동, 사이바바(Sai Baba) 등 인도 유래 컬트들과 메허바바

11) Kelley, Dean, "Comment: Why Conservative Churches are Still Growing?"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7/2 (1978): pp. 166-170.

12) Bibby, Reginald, "Why Conservative Churches Really are Growing: Kelley Revisited?"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7/2 (1978): p. 137.

13) 자세한 것은 즐고, "서양 신종교의 이해," 김종서 외, 「현대 신종교의 이해」,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 49-102 참고.

(Meher Baba) 운동 등의 이슬람 유래 컬트 및 티벳 불교나 일본에서 간 창가학회(Soka Gakkai) 그리고 한국에서 나간 통일교(Unification Church) 등이 주로 포함된다.¹⁴⁾ 특히 서양 유래 컬트들은 새로운 과학적 경향들을 과감히 수용하여 치병의 형식 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동양에서 유입된 컬트들은 명상법과 환생이론 등을 중심으로 신비적 형식들로 폭넓은 대중적 호기심에 호소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매스컴에 실제 오르내리게 되어 미국의 뜨거운 컬트 논의에 등장했었던 주요 종교집단들은 사실상 개신교 교파였던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978년 가이아나로 900여명의 신도들을 데려가 집단 자살 극을 벌였던 짐 존스(J. Jones)의 ‘인민사원(People’s Temple)’을 한번 생각해보자. 흔히 20세기 최악의 컬트 사건으로 꼽히는 재난을 불러 온 셈이어서 인민사원은 그 이후 컬트 운동에 치명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이 집단도 실상은 ‘그리스도의 사도들(Disciples of Christ)’이라는 이미 잘 정립된 비교적 보수성을 지닌 기독교 교단의 일원이었다. 더욱 이 집단은 보수의 벽을 넘어서 주류 기독교 교단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교회일치 운동(ecumenical movement) 단체들인 미국의 전국 기독교회 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와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의 회원 교단이기도 했던 것이다.¹⁵⁾

뿐만 아니다. 1993년 텍사스 웨이코(Waco)에서 경찰이 검거작전을 전개하자 건물방화로 맞서 결국 80여명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을 연출했던 데이빗 코레쉬(D. Koresh)의 소위 ‘다윗파(the Branch Davidians)’도 아주 비슷하다. 즉 비록 보수적이기는 했지만 역시 교회일치 운동 단체들의 회원 교단이었다. 매스컴들에서는 코레쉬가 신도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던 것으로 보도들을 했지만, 사실상 “다윗파에 인질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오직 필요로 했던 구원은 (경찰) 당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을 뿐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

14) 자세한 것은 줄고, “동양 신종교의 이해,” 김종서 외, 『현대 신종교의 이해』,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 103-154 참고.

15) Melton, J. G., *Op. Cit.*, p. 272. 사실 이런 맥락에서 짐 존스는 가이아나 사건 직전 해에 미국 최고의 목회자 상을 타기까지 하였다.

었다.¹⁶⁾ 그래서 다윗파를 미국 기독교의 천년왕국 운동(millenarian movements)의 맥에서 보아야 한다는 논의들도 있었다.¹⁷⁾

한편 오늘날 미국의 기괴한 컬트 집단에 자주 끼워 언급되는 것으로서 예배 때에 광신적으로 독사를 다루는 것들이 있다. 애팔래치아 산맥 일대에서 주로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하는 성경구절(마가 복음, 16/17-18) 등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예배에서 실제로 독사 등을 사용하는 경우들 말이다. 이것은 기괴한 측면 때문에도 종종 매스컴에 나타난다. 하지만 그 보다는 ‘분명하고 현재적인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들이 나와서 화제가 되어 왔다.¹⁸⁾

하지만 김브로우(D. Kimbrough) 같은 학자는 켄터키에서 독사들을 다루고 독을 마시기까지 하는 이러한 집단들을 복음주의적(evangelical) 신앙의 영역 위에 확고히 위치하는 개신교 교파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을 20세기초에 등장한 이성적 기독교에 맞서서 저항하는 오직 성서를 진짜 문자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fundamentalists)의 또 한 양태라고까지 하고 있다.¹⁹⁾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저널리스트였던 커빙톤(D. Covington)의 경우이다. 그는 심지어 컬트라고 여기고 관찰하러 이 교단들에 들어갔다 오하려 성서에 철저한 교단으로 생각되어 스스로 빠져드는 이야기를 쓰고 있기도 하다. 즉 점차 공감하게 됨에 따

16) Tabor, J. D. & E. V. Gallagher, *Why Waco? Cults and the Battle for Religious Freedom 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 4.

17) Lewis, J. R., ed., *From the Ashes: Making Sense of Waco*,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1994, Wright, S. A., *Armageddon in Waco: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Branch Davidian Conflic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이런 점은 사건 이후 잔류 신도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재판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더욱 명확해진다. 아주 최근 잔류 신도들의 천년왕국 신학적 성격에 대하여 Gallagher, Eugene V., “The Persistence of the Millennium: Branch Davidian Expectations of the End after ‘Waco,’” *Nova Religio* 3/2 (2000, April): 303-319 참고.

18) Flowers, R. B., “Freedom of Religion Versus Civil Authority in Matters of Health,”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Social Science*, 446 (1979): 154-156.

19) Kimbrough, D. L., *Taking Up Serpents*,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라서 자신이 직접 독사를 다루며 설교를 하게 되는 과정을 써서 독자들이 그의 영성 발달의 단계를 생생히 느끼게 하고 있다.²⁰⁾

한편 하버드 신학대학의 하비 콕스(H. Cox)는 오순절 영성파(Pentecostal spirituality)를 바로 새로운 세계적 종교개혁의 견인차로서 지목하면서 그의 시대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²¹⁾ 그런데 이러한 침례교나 오순절 파의 성향과 성서에서 보이는 기적의 ‘신호와 경이(signs and wonders)’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독사들을 다루는 그런 종교들이라는 주장들도 있다.²²⁾ 결국 이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컬트라기보다는 주류적 기독교를 지향하는 교파적 성격이 강한 집단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컬트들의 교파에 접근

반면에 위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아주 철저히 컬트로만 보여졌던 ‘뉴에이지(New Age)’ 등과 같은 집단들조차도 주류 기독교와 교리적 차원의 교류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²³⁾ 그리고 심지어는 분명히 뉴에이지의 독특한 사상이나 기술이라고 여겨졌었던 것들이 많은 주류 기독교 교단들에 변혁을 가져왔던 작은 개신교 집단들에서 보인다고도 한다.²⁴⁾

다시 말하자면, 현대 미국사회에서는 주류(mainstream) 종교와 주변(fringe)

20) 심지어 커빙톤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열정과 위험과 신비가 없는 기독교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가 아닐 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Covington, D., *Salvation on Sand Mountain: Snake Handling and Redemption in Southern Appalachian*, Reading, MA: Addison Wesley, 1994, p. 177.

21) Cox, H., *Fire From Heaven: The Rise of Pentecostal Spirituality and the Reshaping of Relig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ading, MA: Addison Wesley, 1995.

22) McCauley, D. V., *Appalachian Mountain Religion: A History*,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5.

23) Hopman, E. Evert & L. Bond, *People of the Earth: The New Pagans Speak Out*, Rochester, VT: Destiny Books, 1996, pp. 296-306.

24) Wuthnow, R., *Sharing the Journey*, New York: Free Press, 1994.

종교 사이에 구분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큰 기독교 교단들이 낯선 켈트적 특성들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에 정작 켈트들은 기성 교단들의 사회적이고 영적인 기능을 공유한다는 말이다.²⁵⁾ 이것은 앞서 지적된 교파와 켈트가 사회 내에서 기능적 대체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성장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교적 근자의 이론적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셈이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켈트들이 교파들에 접근을 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우선 기독교 보수주의와 켈트는 교리적으로 상호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 예컨대, 극단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켈트들의 묵시론적(apocalyptic) 신앙²⁶⁾과 사실 밀접해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만약 켈트나 악마주의자들에 의해 뒤집혀 질 것이라면, 적그리스도(Antichrist)의 통치가 임박했다는 것 그리고 종말이 실로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과연 어찌 의심하겠느냐는 것이다.²⁷⁾ 즉 기독교의 보수적 근본주의자들은 묵시론적 켈트들의 교리를 닮기 쉬우며 그로 인해 종종 켈트로 간주되기가 일쑤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켈트로 간주되어 온 개신교 일부 교단들이 주로 근본주의적 성향을 보여주었던 것을 상기해 볼 수 있다.²⁸⁾

그런데 심지어 일부 동양종교에서 유래하는 켈트들조차도 기독교 종말론적 성향을 띄면서 교파적 성향에 접근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오늘날 정보전달이 수월해지면서 켈트들 자체 내에서 동양 유래의 켈트들과 서양 유래의 켈트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진 때문일 지도 모른다. 즉 서양 켈트들에 있었던 유사 과학적 요소들이 동양 켈트들에 유입되고, 동양 켈트들 속에 있었던 명상이

25) Jenkins, J. P., "Beyond the Fringe: Recent Writing on New and Unorthodox Religious Movements," *Critical Review of Books in Religion 1996*, Atlanta: Scholars Press, 1997, pp. 45-64.

26) 사실 메시아 신앙은 묵시론의 실재성에 기초하고 있다. 묵시론은 실재적인 것이 아니라 가상적(virtual)인 것이다. 마치 컴퓨터의 가상공간처럼. 하지만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Baudrillard, Jean, "Hysteresis of the Millennium," Baudrillard, J., *The Illusion of the En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p. 119.

27) Jenkins, J. P., *Op. Cit.*, p. 46.

28) 예컨대 한 때 '휴거소동'으로 알려진 집단들을 매스컴은 '사이비 종교'나 '유사 종교'나 또는 '신흥 종교'나 하면서 마치 켈트처럼 다루어 왔지만 대개는 근본주의적 개신교의 소 교파들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 환생 개념 등이 서양 컬트들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동서 컬트들간에 구분이 없어진 것²⁹⁾ 등을 생각해 보게 된다.

또 기능 면에서도 컬트들은 교파와 이제 별 차이가 없다고 여겨진다. 오늘날 흔히 컬트의 사회 내에서의 기능은 세 가지로 요약되어 왔다. 즉 피난처(the refuge)나 개혁(reform)의 형식 그리고 해방(release)의 형식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첫째, 피난처라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된다는 것으로서 ‘하레크리슈나파(ISKCON)’나 ‘하나님의 자녀들(Children of God)’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개혁의 형식이라는 것은 기존의 사회-문화 구조를 급진적으로 개선해낼 가르침을 제공한다는 것으로서 ‘통일교’나 ‘과학교(Scientology)’ 및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기로 유명한 ‘시논(Synanon)’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셋째, 해방의 형식은 주로 자아 실현을 방해하는 조건들로부터 풀려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초월명상(Transcendental Meditation)’과 ‘라즈니쉬파(Rajneesh Foundation)’ 및 ‘에어하르트 강좌훈련(Erhard Seminars Training)’ 등이 이에 해당된다.³⁰⁾

그런데 사실 이러한 컬트의 기능들은 이제 결국 교파들에서도 또한 쉽게 볼 수 있는 기능들이다. 따라서 오늘날 세속화(secularization)를 당면하여 기성종교들이 성스러움에서 이탈하여 보잘 것 없어지자, 진정한 종교적 관심을 계속 가지는 사람들은 일부 컬트 집단으로 가고 또 일부는 아직 종교적 관심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보수 교파들로 이동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결국 세속화에 대한 반응이라는 면에서 보았을 때도 컬트와 보수 교파들은 기능적 대체 관계에

29) 이에 대하여는 줄고, “동양 신종교의 이해,” pp. 153-154 참고. 특히 아주 최근에는 뉴에이지 운동과 탈트리즘이 후기 자본주의적 영성 논리의 기반 위에서 극적으로 만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Urban, Hugh B., “The Cult of Ecstasy: Tantrism, The New Age, and the Spiritual Logic of Late Capitalism,” *History of Religions*, 39/3 (2000): 268-304 참고.

30) Beckford, J. A. & M. Levasseur, *Op. Cit.*, pp. 41-44.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십승 지지나 정감록 등과 연관된 신종교 신앙은 첫 번째 피난형, 동학이나 증산교 계통에서 후천 개혁 사상과 연관되어 나타난 신종교 신앙은 두 번째 개혁형, 그리고 증산교 계통과 원불교 등에서 수도를 강조해온 측면 등은 세 번째 해방형이라고 기능적 유형화가 가능할 지 모른다. 물론 20세기 후반이후 등장한 수많은 소위 기독교계의 신종교들은 이러한 민족 신흥종교들의 요소들을 기독교적 요소들과 조화시켜 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³¹⁾ 즉 기능적으로 유사하여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컬트가 사회적으로 1970년대 이후 정당성이 약화되다 보니 교파화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지도 모른다.

한편 정부 당국을 비롯한 사회의 컬트와 교파들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사실상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주로 교리적인 정통성과 이단성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컬트의 이질적 성격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컬트인가 교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범죄나 물의를 일으키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쟁점이다. 실제로 컬트뿐만이 아니라 교파들이 범죄 등에 연관되는 수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으로도 너무 많은 종교집단들이 있다 보니 그들의 지향성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교파적 우산 속에 있는가 아닌가보다 오히려 공공연히 토박거리가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당국과 사회의 입장은 컬트와 교파간의 차이를 가리고 서로의 틈새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4. 컬트 인식의 변화양상

이와 같이 미국에서 컬트들이 교파에 접근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컬트 연구에 적용되었던 개념이나 이론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우선 새로운 컬트의 형식들은 기존의 법적인 컬트 정의들에 도전하고 있다.³²⁾ 주류 교파와는 이질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컬트들은 법적으로나 공식적인 차원에서 주로 불법적이고, 괴상하고, 해롭고, 선정적이며 공격적인 것 등으로만 여겨져 왔었다. 사실상 컬트 집단들이 일반에 알려지게 되는 것은 주로 매스컴들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매스컴들이 컬트들을 진정 바르게 이해해 보려는 의도에서 객관적으로 다루는 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 관심거리를 만든다는 의도에서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 오지 않았던가?

31) 줄고, “현대 신종교의 이론적 문제,” 김종서 외, 『현대 신종교의 이해』,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 20 참고.

32) Beckford, J. A., & M. Lasseur, *Op. Cit.*, p. 49, 또 Jenkins, J.P., *Op. Cit.*, p. 51.

그런데 요즘에는 컬트들이 주류 교파와 유사해지면서 점차 이질적인 성격 자체가 약화되어 왔다. 따라서 도대체 자신들에 있어서 무엇이 불법적이고 피상하고 해로운 것인가 컬트들은 묻고 있다. 도대체 어떠한 종교 지도자의 권위나 성적인 표현이 불법적인가 그들은 묻고 있다. 도대체 기독교의 중심 교리에도 있는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이 왜 잘못된지 묻고 있다.

예컨대, 라 브이(A.S. Lavey)가 창시했던 '사탄교(Satanism)'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흔히 사탄교 하면 초창기에 자신들의 제의적 목적에 그 피와 배설물 등을 쓰기 위해서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심하게 학대하는 집단으로 알려진 바 있다. 또 심지어는 강간과 살인까지 저질러 온 사악한 컬트 집단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였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교의 제의적 학대(Satanic Ritual Abuse, 흔히 약어로 SRA)'라는 것은 사실상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비롯하여 여성주의자들이나 어린이 보호 옹호론자들 및 심리치료사들(psychotherapists)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퍼지게 된 이야기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로 상당히 많은 무고한 사탄교 신도들이 이러한 제의적 학대 때문에 형사적으로 고소되기도 하였었다고 한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 보면, 이러한 반사탄교(anti-Satanic) 신화들은 현대판 '마녀사냥(witch-hunt)'적 성격이 매우 강한 셈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일부 학자들은 이와 같은 20세기 '사탄교의 제의적 학대'라는 것이 바로 심리치료와 근본주의 종교발달사에 가장 비극적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까지 하고 있다.³³⁾

그래도 종종 인민사원이나 다윗과 그리고 아주 최근의 '천국의 문(Heaven's Gate)'³⁴⁾에서처럼 집단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이고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컬트들은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컬트들은 대답한다. 눈에 보이는 이 세속적인 삶의 문제를 초월해서

33) *Ibid.*, pp. 46-47.

34) '천국의 문'의 충격적인 집단자살 사건 후 그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이해의 노력이 있어왔다. 그 북중의 메카니즘과 사이버 공간 시대적 의미에 대한 최근 연구들로서 Davis, Winston, "Heaven's Gate: A Study of Religious Obedience," *Nova Religio* 3/2 (2000, April): 241-267, Urban, Hugh, B., "The Devil at Heaven's Gate: Rethinking the Study of Religion in the Age of Cyber-Space," *Nova Religio* 3/2 (2000, April): 268-302.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찮은 육체적인 몸을 포기했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영성 생활을 위한 육신적 삶의 포기가 기독교 초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사자 굴로 뛰어 들었던 허다한 순교자들이나 신교의 개척기마다 피를 흘렸던 수많은 숭고한 순교자들의 용감한 신앙적 실천과 무엇이 다른가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 죽는 것은 제 목숨 제가 끊는 것이니까 내버려두기로 하자는 수도 있다. 하지만 종교라고 하면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는커녕 다윗파나 하레크리슈나파처럼 중무장을 해서 신도들을 포함한 타인들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위협하는 것은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이 불법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켈트들은 비난받아 왔다.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악랄한 힘에 맞서 영적인 무장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문자 그대로의 무력적 무장을 함으로써 종말의 날에 대비하는 것이 더욱 성경적이 아닌가 다윗파는 대답했었다.

하여간 그래도 죽음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죽음과 연관되는 켈트의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간과될 수 없는 심층적 논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죽음에까지 이르는 아주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면 개개인의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가능한 존중해주는 것이 최근 대다수 국가들의 추세이다. 즉 헌법적인 종교자유 인정은 대개의 법원들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³⁵⁾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을 하느라고 수혈이 필요한데 환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예전에는 대개 강제 수혈을 했으나 점차 생명에 지장이 없다면 환자의 종교적 주장을 존중하여 수혈을 하지 못하게 하는 판례 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³⁶⁾ 이러한 추세라면 켈트들의 종교행위도 차차 더 폭넓은 정의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작금의 켈트 운동들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는 매우 심각한 면이 있어 왔다는 지적들도 있다. 즉 흔히 켈트를 무조건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사회적 불안이나 새로운 심리적 기술 등의 탓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켈트도 그 자체가 정상적인 바로 인간의 문화적 창조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다.³⁷⁾ 즉 억압적인 상황이 풀리면 교파운동

35) 줄고, "현대 종교법제의 이론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15/1 (1992): 169.

36) Flowers, R. B., *Op. Cit.*, pp. 156-158.

이나 대안적인 경건 형식으로 컬트들이 출현하기 마련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불안이 단순히 종교적 열정(ferment)을 가져왔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한다.³⁸⁾ 사회불안이 해소되어도 종교적 열정은 대부분 계속되기 때문이다. 미국 서부의 컬트 흥기도 종종 '베이비 붐' 시대에 딸려오는 사회적 불안 탓으로 설명되었으나 실제로는 이민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그와 더불어 아시아 종교들이 자유롭게 들어 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사람들은 흔히 그들 가까이 있는 것들로부터 컬트들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정은 그 문화의 주도적 종교관의 새로운 변형이라고 할 교파적 성향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등에서 많은 컬트들이 개신교 교파나 가톨릭 교단을 닮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의 문화 속으로의 타종교의 강한 유입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교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한다. 즉 이질적인 종교관이 직접 유입되거나 기존의 종교문화와 절충적인 형식이 생겨나게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1965년 개방된 이민법이 선포된 이후 미국은 새롭게 창조된 아시아의 종교문화 형식들을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컬트 형식들이 미국문화의 전달체계를 타고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⁹⁾

이렇게 보았을 때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을 위시하여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활발한 컬트 운동들은 결코 단순히 이질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⁴⁰⁾ 그리고 이렇게 컬트에서 이질성과 비정상성이 그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니 교파와의 구별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즉 종교조직 유형론적으로 말해서 오늘날 컬트들은 교파와 거의 구분이 안 되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이며 긍정적인 종교집단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실로 미국에서는 1970년대까지 분명한 컬트로서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왔었던 집단들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체로 대중들의 관심사에서 자

37) Melton, J. G., *Op. Cit.*, pp. 267-268.

38) *Ibid.*, p. 268.

39) 근자에 들어서 반종교 운동(anti-cult movements)들이 국제화되어 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컬트들이 미국에서부터 점차 국제화되니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다.

40) *Ibid.*, pp. 268-269.

취를 감추었다. 특히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부 집단들의 마찰이 불거져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로 주변과 더불어 상대적인 평화(?)관계 속으로 들어와 있는 셈이다. 예컨대, 통일교 소유의 '워싱턴 타임스(the Washington Times)'가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Christian Science Monitor)처럼 인정받는 신문이 되었고, 과학교(Scientology)와 미국 국세청(IRS) 간의 오래된 싸움이 해결이 되었으며, 하레크리슈나파 등 인도 유래 컬트들이 미국 등에서 거의 뉴스거리가 되지 않게 되었다.⁴¹⁾

이렇게 컬트들의 주변과의 공존적 관계가 발전된 데는 20세기 후반 들어서 서구 종교계에 종교다원주의(pluralism)가 급속도로 만연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또한 중요한 변수라고 할 것이다. 즉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의 확대는 컬트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쉽게 용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60년대 이후 나타났던 소위 초기 컬트들은 내부적인 변화들을 또한 겪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축출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다 보니 점차 세대변화들을 초래하였다는 말이다. 예컨대 과학교, 통일교, 하레크리슈나 및 하나님의 자녀들(오늘날에는 '가정 the Family')의 초창기 신도들이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이미 성년이 되어 집단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들 컬트들은 대체로 초창기의 매우 공격적이었던 포교 방식들을 바꾸게 되어 대 사회적인 긴장 관계를 많이 줄이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 이렇게 제 2세대 컬트 집단들은 리더쉽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갖게 되었다. 즉 통일교의 문선명 교주만 빼놓고 과학교의 허버드(L. R. Hubbard)나 하레크리슈나의 스와미 프라부파다(Swami Prabhupada) 등 대부분의 큰 컬트 집단의 창시자들이 죽었다. 따라서 교단 내의 권력구조가 훨씬 카리스마가 약하고 집단 지도 체제적이며 관료 체제적인 리더쉽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러한 리더쉽 속에서 대 사회적으로 투쟁적인 교단 운영을 피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셈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더 이상 배척 당하는 집단들이 아닌 비교적 안정적인 종교단체들이 된다는 것이다.⁴²⁾

41) *Ibid.*, p. 273.

42) *Ibid.*, p. 275. 이와 관련하여 델톤은 그 동안 많은 사회과학적 컬트 연구 문헌들이

사실상 오늘날 ‘컬트(cult)’라는 영어의 용어는 대중문화 속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의 요즈음 쓰임새는 주로 약간 이상한 새로운 문화 현상들을 지칭하기 위해서인 셈이지만 특별히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숭배에 가까울 정도로 열광되는 것들을 ‘컬트 영화’나 ‘컬트 음악’이니 하고 부른다.

‘뉴에이지’의 경우도 아주 비슷하다. 즉 본래는 1960년대 영국의 비결신행(occult) 집단들이나 형이상학적 교회(the metaphysical Churches)들의 맥과 평행선상에서 전개되어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집단적으로 형성되었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아주 본격화된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실로 뉴에이지 운동이 그 중심을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옮겨오면서 ‘뉴에이지’라는 제목이 붙은 수많은 정기 간행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동안 뜸했던 비결신행들이 뉴에이지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끈바 ‘영성적(spiritual)’ 컬트 운동 속으로 쓸어 넣었다.

특히 이러한 뉴에이지 운동은 예전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컬트적 개념을 가져오는데 일조 했다고 생각된다. 즉 환생과 같은 뉴에이지 신앙의 일부를 받아 들였던 사람들은 결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탈자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주류 기독교 교회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었다. 또 뉴에이지 사상의 맥락에서 점성술사들은 그들의 기술을 인간 잠재력 개발운동 등 심리학적 지식이나 상담 기술 등에 접합시켜 왔다. 그리고 오랜만에 서구 문화 속에서 형이상학적 사상들의 뒷받침을 받게 된 뉴에이지 운동은 생태학, 자연식(natural food), 평화 및 대체 건강 실천법 등 다양한 대중문화 운동들을 컬트 개념 속에 포괄시켜 왔다.⁴³⁾ 이쯤 되니 뉴에이지로 포장된 컬트들은 특히 음악과 영화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예술적 표현들을 전달매체로 초대하게 되었고, 점차 일반인들에게서조차

컬트 집단 내에서 카리스마적 교주들의 절대적인 역할들을 강조해 온 것은 좀 과장된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교주들이 죽고 리더쉽이 넘겨지는 과정에서 일부 권력투쟁의 양상이 있는 집단들도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는 집단들의 존재방식 자체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동요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43) 이 분야의 전개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로서 Albanese, Catherine L., “The Aura of Wellness: Subtle-Energy Healing and New Age Religion,” *Religion and American Culture* 10/1 (2000, winter): 29-55 참조.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견해나 신앙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뉴에이지의 폭발적인 상품화를 열어 놓았다.⁴⁴⁾

물론 1980년대 후반 이후 더 이상 '안정된 평화의 새로운 왕국'에로의 의미심장한 사회변동을 회구해 온 것과 같은 중심적 뉴에이지 신앙⁴⁵⁾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아직도 개인적인 변화(transformation) 경험과 초월 세계와의 접촉과 같은 뉴에이지 신앙의 형이상학적 요소들은 여러 양태의 컬트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는 중요한 측면들이다.⁴⁶⁾ 그리고 그러한 컬트들은 종래의 종교조직 유형론적 구분 틀 속에 간혀 있는 그러한 컬트들이 더 이상 아니다. 아주 널리 별 거부감 없이 수용되고 있는 정당한 종교집단들인 셈이다.

이상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컬트의 교파적 추구 경향과 연관하여 우리 나라의 컬트들은 과연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물음들은 본 논문의 주제를 넘어서 또 다른 긴 이야기를 신중하게 요구하는 화두일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 나라 컬트들에도 의미심장한 유사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나라의 컬트들을 이해하는 관점 자체도 많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더 이상 오해에 근거한 주간지 폭로기사형 호기심이나 인민재판 형식으로 나타나는 현대판 마녀 사냥식 컬트 죽이기는 청

44) 뉴에이지의 물질주의 내지 현대 (후기) 자본주의적 성향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즉 “하나님이 무한하듯이 쇼핑은 무한하다” 그리고 “부유해지는 것은 깨달음의 한 기능이다” 라는 식의 입장들이 나왔다. Ray, Sandra, *How to Be Chic, Fabulous and Live Forever*, Berkeley: Celestial Arts, 1986과 Heelas, Paul, “Cults for Capitalism: Self Religious, Magic and the Empowerment of Business,” Fulton, J., ed., *Religion and Power: Decline and Growth*, London: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1991, pp. 27ff 참고.

45) 본래 '뉴에이지' 신앙은 태양의 춘분점이 22,000 년마다 12개의 서양 점성술의 별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과 연관된다. 그러니까 그 동안 2000 여 년간이나 물고기 자리(Pisces)에 있던 것이 이제 물병자리(Aquarius)로 옮겨감으로서 기독교의 시대(흔히 물고기로 상징됨)가 끝나고 물병에서 물이 쏟아지듯이 새로운 영이 쏟아져 내리는 시대가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새 시대는 특히 보편적 에너지에 의한 단일의 보편종교가 주도하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왔다.(줄고, “서양 신종교의 이해,” pp. 90-93 참조)

46) Melton, J. G., *Op. Cit.*, p. 274.

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종교상식도 없이 한심하게 선부른 사회과학적 이론 적용에 의한 왜곡된 해석들도 모두 비판받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 사회 속의 컬트들을 우리의 정상적인 영성 문화의 일부로 여기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이해하려는 진지한 태도가 요청된다.

더구나 오늘날 미국에서는 앞서 지적되었듯이 특히 서양유래 컬트들과 동양유래 컬트들이 접근하면서 양자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다. 새로운 영성의 추구에 즈음하여 전통적 교파와 컬트간의 벽뿐만이 아니라 동서양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분명히 다가오는 미래는 더욱 더 보편적이고도 참신한 종교 인식이 갈구되는 시대라고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lbanese, Catherine L., "The Aura of Wellness: Subtle-Energy Healing and New Age Religion," *Religion and American Culture* 10/1 (2000, winter): 29-55.
- Baudrillard, Jean, "Hysteresis of the Millennium," Baudrillard, J., *The Illusion of the En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 Beckford, J. A. & M. Levasseur, "New Religious Movements in Western Europe," In Beckford, J. A., ed., *New Religious Movements and Rapid Social Change*, Sage Publications Ltd., 1986, pp. 29-54.
- Bibby, Reginald, "Why Conservative Churches Really are Growing: Kelley Revisited?"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7/2 (1978): p. 137.
- Covington, D., *Salvation on Sand Mountain: Snake Handling and Redemption in Southern Appalachian*, Reading, MA: Addison Wesley, 1994.
- Cox, H., *Fire From Heaven: The Rise of Pentecostal Spirituality and the Reshaping of Relig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ading, MA: Addison Wesley, 1995.

- Davis, Winston, "Heaven's Gate: A Study of Religious Obedience," *Nova Religio* 3/2 (2000, April): 241-267.
- Flowers, R. B., "Freedom of Religion Versus Civil Authority in Matters of Health,"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Social Science*, 446 (1979): 149-161.
- Gallagher, Eugene V., "The Persistence of the Millennium: Branch Davidian Expectations of the End after 'Waco'," *Nova Religio* 3/2 (2000, April): 303-319.
- Heelas, Paul, "Cults for Capitalism: Self Religious, Magic and the Empowerment of Business," Fulton, J., ed., *Religion and Power: Decline and Growth*, London: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1991.
- Hopman, E. Evert & L. Bond, *People of the Earth: The New Pagans Speak Out*, Rochester, VT: Destiny Books, 1996.
- Jenkins, J. P., "Beyond the Fringe: Recent Writing on New and Unorthodox Religious Movements," *Critical Review of Books in Religion 1996*, Atlanta: Scholars Press, 1997, pp. 45-64.
- Kelley, Dean, "Comment: Why Conservative Churches are Still Growing?"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7/2 (1978): pp. 166-170.
- Kimbrough, D. L., *Taking Up Serpents*,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 Knitter, Paul F., *No Other Name?*,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6.
- Lewis, J. R., ed., *From the Ashes: Making Sense of Waco*,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1994.
- McCauley, D. V., *Appalachian Mountain Religion: A History*,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5.
- Melton, J. G., "The Changing Scene of New Religious Movements: Observations from a Generation of Research," *Social Compass* 42/2 (1995): 265-276.
- Ray, Sandra, *How to Be Chic, Fabulous and Live Forever*, Berkeley:

- Celestial Arts, 1986.
- Robbins, T. & D. Anthony, "New Religions and Cults in the United States," In Eliade, M., ed.,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vol. 10,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pp. 394-405.
- Stark, R., "Church and Sect," In Hammond, P.E., ed., *The Sacred in a Secular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p. 139-149.
- Tabor, J. D. & E. V. Gallagher, *Why Waco? Cults and the Battle for Religious Freedom 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Theology Today, April, 1975.
- Urban, Hugh B., "The Cult of Ecstasy: Tantrism, The New Age, and the Spiritual Logic of Late Capitalism," *History of Religions*, 39/3 (2000): 268-304.
- Urban, Hugh, B., "The Devil at Heaven's Gate: Rethinking the Study of Religion in the Age of Cyber-Space," *Nova Religio* 3/2 (2000, April): 268-302.
- Wright, S. A., *Armageddon in Waco: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Branch Davidian Conflic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 Wuthnow, R., "Religious Movements and Counter-movements in North America," In Beckford, J.A., ed., *New Religious Movements and Rapid Social Change*, Sage Publications Ltd., 1986, pp. 1-28.
- Wuthnow, R., *Sharing the Journey*, New York: Free Press, 1994.
- 줄고, "현대 종교법제의 이론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15/1 (1992): 165-181.
- 줄고, "현대 신종교의 이론적 문제," 김종서 외, 『현대 신종교의 이해』,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 1-48.
- 줄고, "서양 신종교의 이해," 김종서 외, 『현대 신종교의 이해』,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 49-102.
- 줄고, "동양 신종교의 이해," 김종서 외, 『현대 신종교의 이해』,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 103-154.

〈Abstract〉

Conservative Churches and New Religious Movements in Contemporary America

Kim, Chongsuh

It is said that American religions are in crisis now. Some say that religions are facing up to secularization in this age of science and the prevalence of religious pluralism results in a radical relativization of belief systems in the States. This is true. However, an extreme spiritual crisis always invites a new spiritual reevaluation of the status quo. In other words, if it is a period of disenchantment, it is also a period of longing now. To me, the evidence is decisive: Human nature cannot stand a vacuum in systems of faith.

If so, where is sacredness located in America today? Probably we may consider two areas: conservative churches and new religious movements. Fundamentalists, evangelical conservatives and new evangelicals have continued to thrive, irrespective of popular secularization and religious pluralism. And New Age movements, cult movies, cult music, etc. have introduced new hierophanies in unique forms of cults and a wide spectrum of various avant-garde cultures.

In this context,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se two trends of conservative churches and new religious movements come in contact with each other these days. That is, the growth of extremely conservative churches often reveals something like cults' and understanding cults often aids in analyzing the sectarian pursuits of mainline churches.